

지적측량수수료체계, 국민 의견 듣는다

- 9월 26일 공청회에서 산식 간소화 등 지적측량 서비스 전반 개선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26일(화) 건설회관에서 「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방안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
* (일시/장소) '23.9.26.(화), 13시 30분 ~ /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(150명 규모)

○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·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,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□ 기존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(시·군·구), 면적 등에 따라
①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되어 ②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○ 이에,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·학·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.

○ 먼저,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, 투입인력, 처리시간 등을 정밀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·확정하고, 측량수수료 산식을 간소화*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경계측량을 기본수수료로 정하고 분할, 신규등록 측량 등 종목별로 차등 부여

○ 아울러 측량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, 측량수행자는 시·군·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*하는 등 지적측량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하였다.

* 측량의뢰(방문·전화) → 측량실시(측량수행자) → 성과검사(시군구), 성과도교부(방문·우편)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「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」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	유상철 (044-201-3478)
		담당자	사무관	박공열 (044-201-3479)
		담당자	주무관	고은정 (044-201-3486)

 국토교통부

지적측량수수료체계
개편을 위한

공청회

일시
2023. 09. 26.(화) 13:30 ~ 16:00

장소
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

지적측량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유 및
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
발전방향 모색

